

“소상공인의 단비” 새희망자금 등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선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20건 선별
긴급대출, 공공부문 선결제 등
중기부, 우수직원에 인센티브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신속 금융지원 등이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그동안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0년도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통한 자금애로 해소, 공공부문 최초 선결제 도입 및 착한 소비자 민간확산 캠페인까지 총 4건을 최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4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우수사례는 1차 서면심사, 2차 온라인 발표를 진행한 뒤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및

2020년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4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소상공인 긴급대출(1000만원)로 자금애로 해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신속 금융지원
	공공부문 최초 선결제 도입 · 민간확산 캠페인
우수 (9건)	(동행세일) 케이(K)-세일로 방역과 경제 두마리 토끼
	구례5일장 무등록 상인에 대한 정책자금 · 현장 밀착지원
	현장 밀착 지원을 통한 화개장터 침수피해 조기 극복
	마스크 대란해소 · 케이(K)-방역 세계화의 1등공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릴레이 라이브커머스 추진을 통한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확대
	중소기업 기술탈취 위해 검찰과 중기부 맞손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백년멘토의 성공노하우 방출, 전국 최초 소상공인 프로보노단 결성
공동 확산수출상담회로 중소기업 수출애로 극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전 직원의 전자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특별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했다. 또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 선별,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서비

스로 이뤄지는 최초의 간편지원금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난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시작해 그동안 230만여명에게 총 2조5000억원의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역할을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신청이 폭증해 자금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저신용·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 긴급대출제도'를 도입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조회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정책자금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도 했다.

실제 코로나19로 보증수요 급증에 대응해 현장실사 최소화, 신속심사제 등을 통해 월평균 보증물량을 최대 10배 처리하고, 기존 20일 가량 걸리던 처리기간도 1~2일로 줄이는 등 소상공인 보

증신청도 신속히 처리했다.

이외에도 ▲법국가적 소비 진작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동행세일 행사 ▲구례 5일장 무등록 상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대풍피해를 입은 화개장터의 현장 밀착지원 등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장관표창, 포상금,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특별승급, 승진가점, 해외 벤치마킹 기회부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중기부 운영섭 혁신행정담당관은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며 "향후에도 끊임없는 적극행정과 업무혁신을 통해 국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중기중앙회-LH

건설·건축분야 中企 재기 지원 '한뜻'

'자상한 기업' 22번째 시리즈
혁신 창업·기업 성장 촉진
'실무협의체' 구성... 지속 점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건축분야 창업·중소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힘을 모은다.

중기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중기중앙회와 '건설·건축 분야 혁신조달·창업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상생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상한 기업' 시리즈 중 22번째다.

22호 자상한 기업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분야에 특화된 혁신 창업과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산업 영역인 건설·건축 분야에서도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공공 조달 확대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중소기업들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왼쪽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변창흠 LH 사장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건설·건축 분야에 특화된 혁신 창업 기반시설 구축과 공공 조달 확대 등을 통해 창업부터 성장까지 탄실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협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와 소상공인의 재기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오늘 협약에서 나온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 건설 중소기업들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는 "건축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건축 특화 랩업 조성과 국내·외 판로지원 강화,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대중기협력재단 급여일부 모아 소외계층에 기부

사무총장·본부장 등 동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임원 급여 일부를 반납해 코로나19 소외계층 돕기에 나섰다.

대중기협력재단은 김순철 사무총장과 본부장 3명이 급여 중 일부를 모아 만든 2628만원을 구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달한 기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로구 지역의 기

조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에 전달된다.

대중기협력재단은 또 기부금의 혜택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누리상품권 형태로 해당 취약계층에게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단 김순철 사무총장은 "이번 기부금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동반성장 상생협력으로 극복합니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다.

/대중기협력재단

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복지부장관 표창... "나눔문화 확산"

10억 넘게 기부... 지역 발전 앞장

시몬스가 '2020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는 사회공헌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24일 시몬스에 따르면 시몬스측대는 지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힘써오고 있다. 매년 명절에는 이천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구입해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기부했다. 또 사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전기압력밥솥, 가스자동차단기(가스안심콕), 보행보조기(실버카), 에어컨 등 생활용품도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등 꼭 필요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 왔다.

현재까지 기부한 액수만 10억원을 훌쩍 넘는다. 시몬스측대는 또 지역사회



Since 1870

에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이천시의 대표 상생 파트너로 자리 잡아 지난해 '나눔문화 확산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 8월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역대급 장마로 어려움을 겪는 이천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1억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며 나눔을 이어갔다.

시몬스는 경기도 이천의 '시몬스 테라스'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를 통한 지역 발전에도 앞장서고 있다. 시몬스 테라스는 한국 시몬스의 측면에 대한 고민과 진정성을 다양한 콘텐츠로 선보이는 복합문화공간이자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는 '소셜 스페이스(Social Space)'로 자리잡았다.

/김승호 기자

행복한백화점 21주년 기념 '행백 쇼핑제'

오늘부터 2주간 진행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 개점 21주년을 맞아 25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2주간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행사는 집객 및 고객유치에 집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단독상품과 혜택을 강화한 이벤트에 집중해 기획했다.

첫 날인 25일부터 7일간 열리는 전야제 기간에는 구매금액별로 사은품을 증정한다. 20만·40만·60만·100만원 이상 구매 시 각각 1만·2만·3만·5만원의 행복한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5만·7만원 이상 구매 시엔 각각 치약세트와 주역의 분식그릇세트를 선물한

다.

12월 2일부터 8일까지 메인행사 기간에는 동일브랜드 20만·40만·60만원 이상 구매 시 2만·4만·6만원 상품권을 증정하며 개점 21주년 타이틀에 맞춰 21을 강조한 이벤트 '행백이가 쓴다'를 선보인다.

'행백이가 쓴다' 이벤트에선 행사기간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로봇커피머신 로보프레소와의 콜라보를 통해 2121잔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증정하고, 12월 3일 개점기념일에는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211개의 떡을 제공한다.

행복한백화점은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으로서 전체 입점 매장의 97% 가량을 중소기업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